

주요 내용

1. [위기청소년 생활 실태]
위기청소년 절반가량, 가정폭력 피해 경험있다!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1) 건강 전문가가 말하는 피해야 할 음식 TOP10
 - 2) 한국인의 육류 소비 실태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위기청소년 절반가량, 가정폭력 피해 경험있다!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명시된 법적 개념이다.

국가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기청소년의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에 입소 또는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다.

이 조사에서 위기청소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들여다보니 가족과의 갈등으로 상처받고,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했다. 가정 내에서 부모(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고, 일부는 집 밖을 떠도는 가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해/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번 '위기청소년 생활실태조사'는 다각도에서 청소년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유의미한 자료이다. <넘버즈> 145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 조사 자료를 토대로 위기청소년의 삶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출, 자살, 비행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요즘,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청소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위기청소년 생활실태조사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된 법적 개념이다.

조사 개요

구분	내용
• 조사 대상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기관에 입소 또는 이용경험이 있는 9~19세 청소년
• 조사 방법	우편조사(우편발송을 통한 거치조사)
• 표본 규모	4,203명(474개 지원기관을 통해 조사)
• 표본 추출	지원기간별 입소/이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비례할당 추출
• 표본 오차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1.3\%$
• 조사 기간	2021년 8월 27일 ~ 11월 30일
• 조사 주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대상 지원기관(총 10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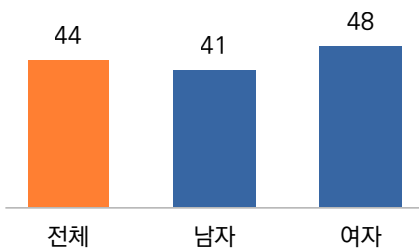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국립인터넷드림마을,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원, 보호관찰소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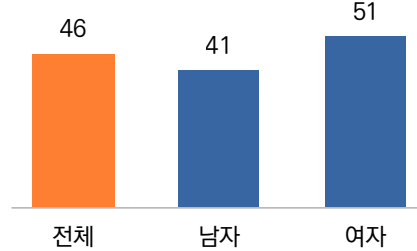
위기청소년 절반 가까이, 가정폭력 피해 경험있어!

- ▶ 가정 내 폭력 경험을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의 절반 가까이 부모(또는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44%) 과 언어폭력(46%)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성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신체·언어폭력 경험률이 높았다.

[그림] '신체적' 가정폭력 피해경험 ('있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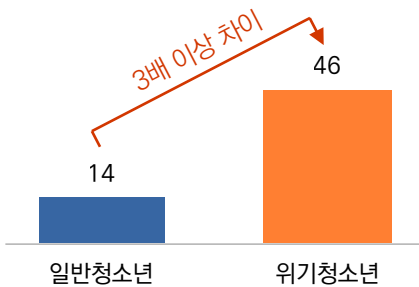
[그림] '언어적' 가정폭력 피해경험 ('있다' 응답률, %)



◎ 일반청소년과 비교, 위기청소년 정서학대(언어폭력) 경험 3배 이상 높아!

- ▶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일반 청소년의 비율이 14%로 조사됐다. 즉, 일반 청소년의 경우 정서학대(언어폭력)를 경험한 비율이 7명 중 1명꼴이었다.
- ▶ 앞서 위기청소년의 경우 언어적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46%에 달한 점을 고려해보면, 위기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가정 내에서 언어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 비율이 3배 이상임을 보여준다.

[그림] 일반청소년 vs 위기청소년 정서학대(언어폭력) 경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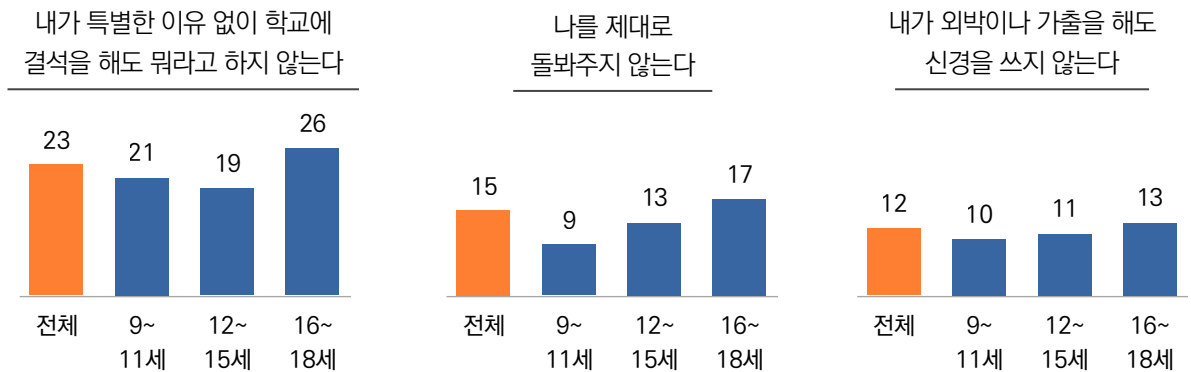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전국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총 4,000가구 대상, 2019.01.07.~02.28, 대면조사)

◎ 위기청소년 4명 중 1명 가까이(23%), 이유 없이 학교 결석해도 부모(보호자)가 방치!

- ▶ 부모의 방임 여부를 살펴보면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에 동의한 비율은 23%로 조사돼 위기청소년 4명 중 1명 가까이 학교를 결석해도 부모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방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또, '부모(보호자)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5%,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2%로 나타났다.
- ▶ 연령별로 나이가 높을수록 부모(보호자)의 방임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부모(보호자)의 방임 경험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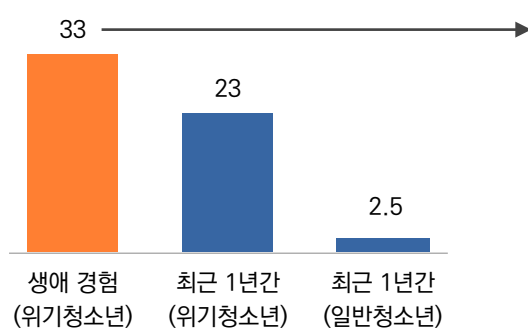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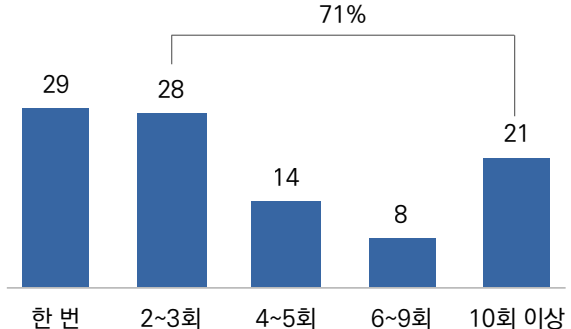
위기청소년 1년간 가출 경험 23%, 일반청소년의 9배 높아!

- ▶ 위기청소년 중 그동안 한 번이라도 '가출을 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33%로 3명 중 1명 꼴이었으며, 최근 1년간 가출경험은 23%로 4명 중 1명 꼴이었다.
- ▶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을 일반청소년과 비교하면 일반청소년*은 2.5%로 위기청소년의 가출 경험률이 무려 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위기청소년의 가출 빈도를 보면, 71%가 2회 이상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체 위기청소년의 23%에 해당되는 비율로, 4명 중 1명은 반복적으로 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가출 경험 (%)



[그림] 가출 빈도 (가출 경험 청소년, 생애경험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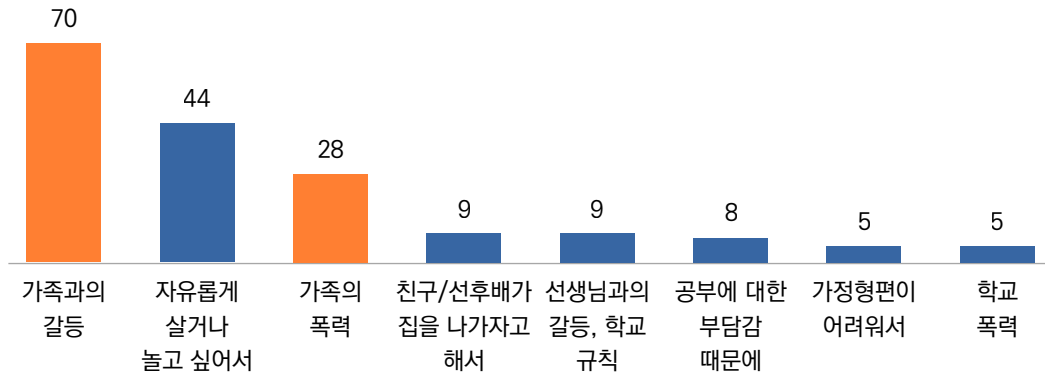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1.03.22 (초4~고3 학생 14,536명, 2020.07~10)

◎ 가출의 주된 이유 ‘가족의 폭력/갈등’ 70%!

- ▶ 집을 나오게 된 주된 이유는 ‘가족 간의 갈등’(70%)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44%,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28% 등의 순으로 높아 가정 내 갈등이나 폭력이 청소년 가출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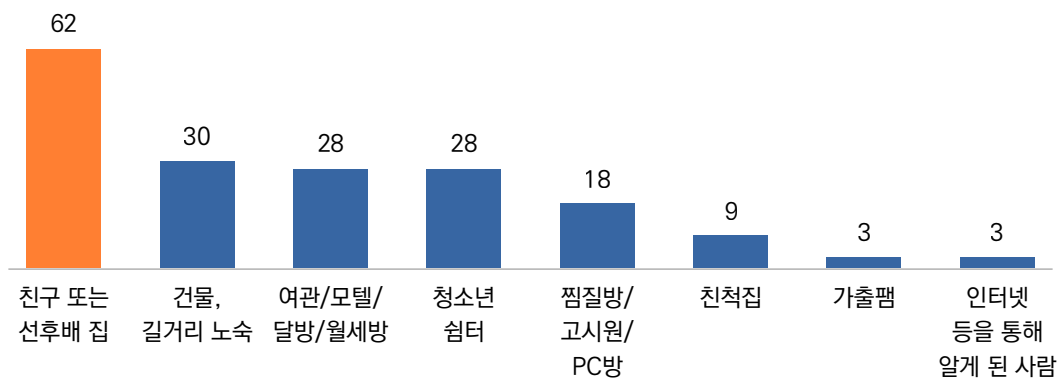
[그림] 집을 나오게 된 이유 (가출경험 청소년, 상위 8위, 복수응답, %)



◎ 가출 후 지냈던 장소, ‘건물 또는 길거리 노숙’ 30%!

- ▶ 가출 후 지낸 장소는 ‘친구 또는 선후배 집’이 6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물 또는 길거리 노숙’ 30%, ‘여관/모텔/달방/월세방’ 28%, ‘청소년 쉼터’ 2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으로 지낸 가출 청소년이 10명 중 3명 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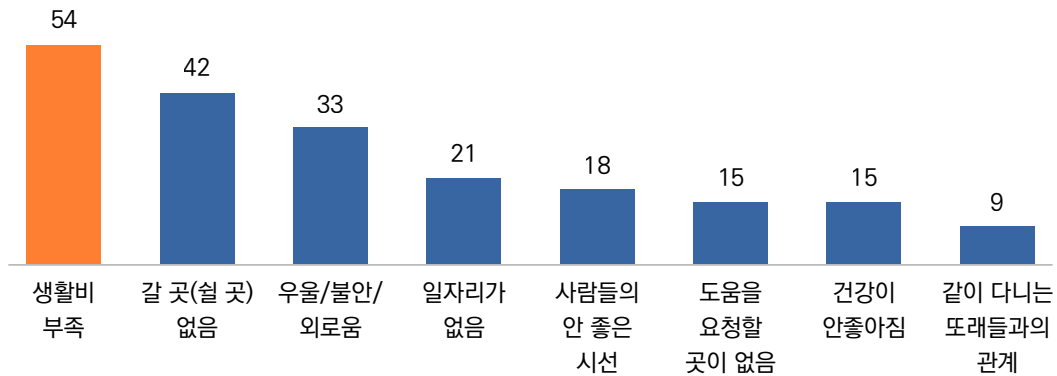
[그림] 가출 후 지냈던 장소 (상위 8위, 복수응답, %)



◎ 가출 후 가장 힘들었던 점, '생활비 부족'과 '갈 곳이 없다'!

- ▶ 집 밖 생활 중 어렵고 힘들었던 점으로 '생활비 부족'(54%)을 꼽은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갈 곳(설 곳)이 없음' 42%, '우울/불안/좌절 등 심리적 어려움' 33%, '일자리가 없음' 21% 순이었다.
- ▶ 성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생활비 부족'(57%)과 '거처 문제'(38%)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생활비 부족(51%)'과 '거처 문제(48%)'뿐 아니라 '우울/불안/좌절 등의 심리적 어려움'(4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가정 밖 생활 중 어렵고 힘들었던 점 (상위 8위,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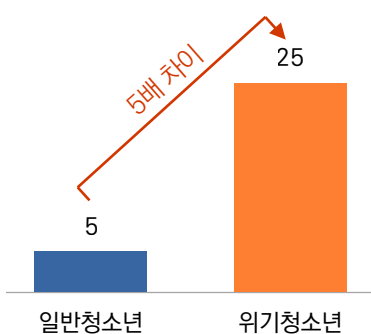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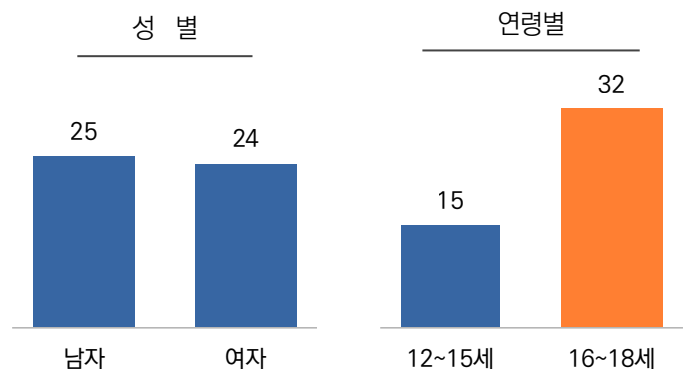
위기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 25%!

- ▶ 위기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25%로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청소년* 5%보다 무려 5배나 높은 비율이다.
- ▶ 성관계 경험률은 남자 25%, 여자 24%로 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12~15세 중학생 연령대는 15%였으나, 16~18세 고등학생 연령대로 올라가면서 32%로 두 배나 높아졌다.

[그림] 성관계 경험률 (일반청소년과 비교, %)



[그림] 위기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 (성/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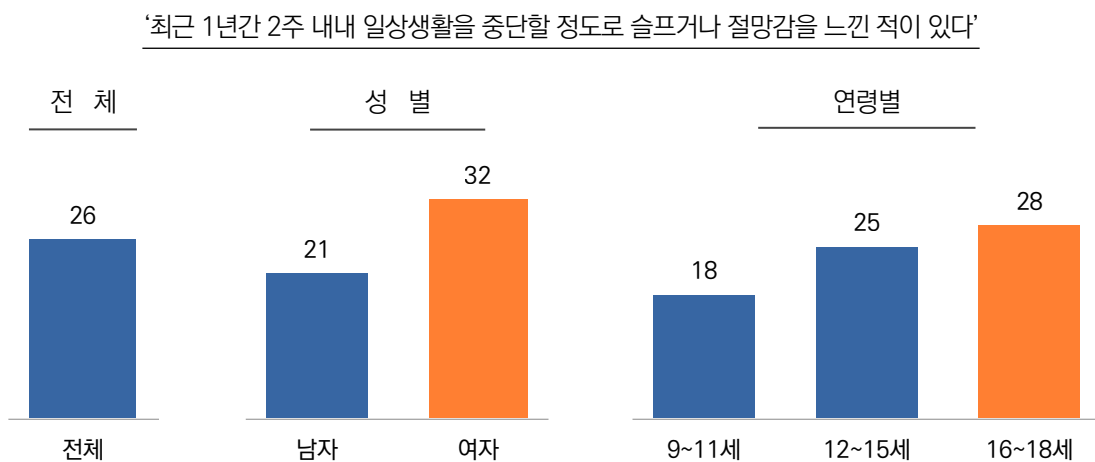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2021.03(전국 중1~고3 학생 54,948명, 온라인조사)

04

위기청소년 4명 중 1명(26%), 최근 2주 내내 일상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우울감 경험!

- ▶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우울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위기청소년의 26%가 '그렇다'고 답했다.
- ▶ 우울감 경험률은 성별,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 청소년(32%)이 남자 청소년(21%)보다 우울감 경험률이 크게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경험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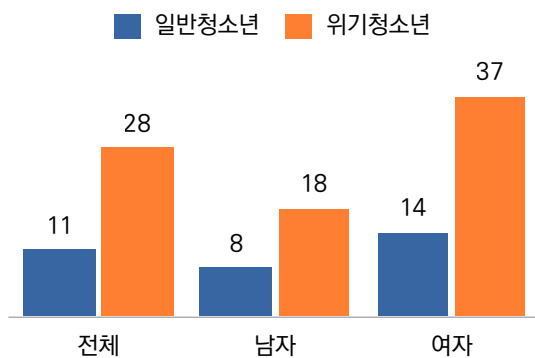
[그림] 위기청소년 우울감 경험률 ('그렇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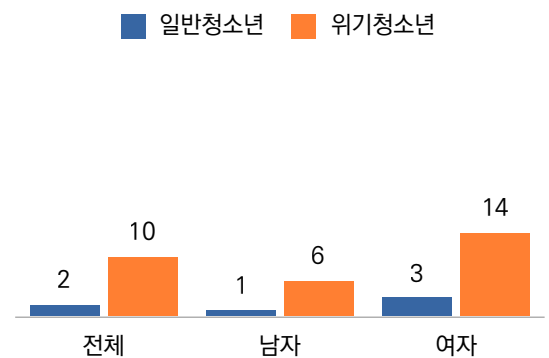
◎ 위기청소년, 최근 1년간 10명 중 1명꼴로 '자살 시도'!

- ▶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위기청소년은 28%로 10명 중 3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시도는 1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 자살 시도는 남자 청소년(6%)보다 여자 청소년(14%)이 두 배 이상 높았다.
- ▶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면 자살 생각은 3배 가까이, 실제 시도는 5배나 위기청소년이 높았다.

[그림] 자살 생각해 본 적 있다 (최근 1년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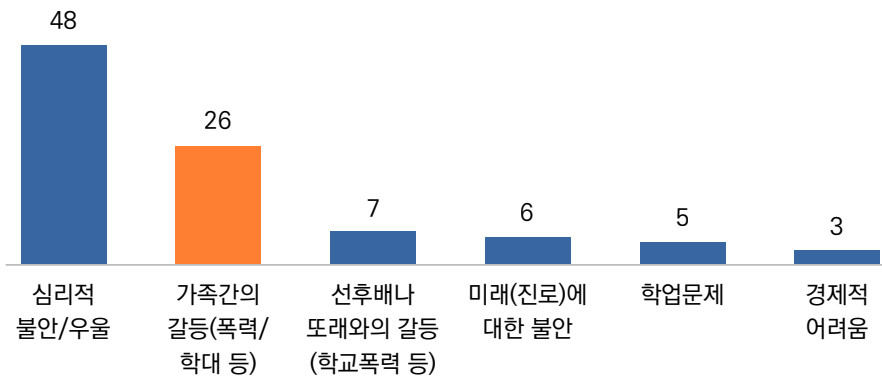
[그림] 자살 실제 시도 경험 (최근 1년간, %)



◎ 자살 생각 및 시도 이유, '가족 간의 갈등과 학대' 26%

-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이유를 보면, '심리적 불안/우울'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간의 갈등(폭력/학대 등)' 26%,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7%,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족간 갈등, 폭력, 학대 등 가족 요인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비율이 26%나 되는데, 청소년 시기에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자살 생각 및 시도 이유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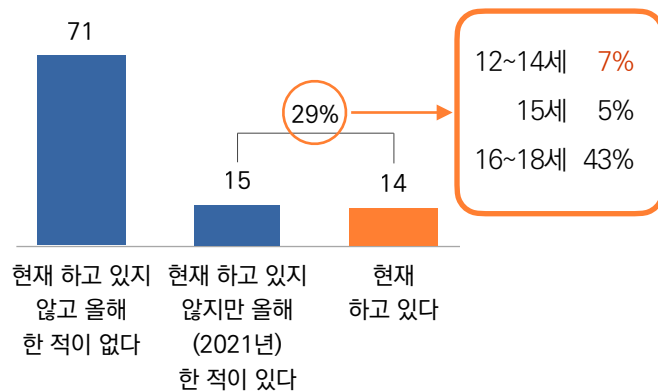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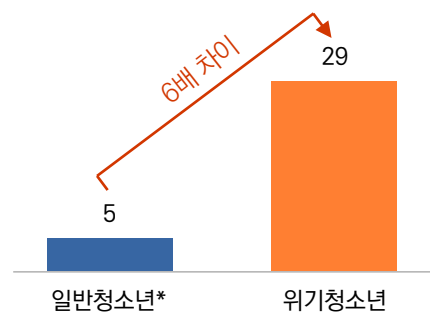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경험률, 일반 청소년보다 위기청소년이 6배 높아

- 앞서 집 밖 생활 중 어려움으로 '생활비 부족'을 1위로 꼽았는데, 위기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을 알아보았다. 위기청소년의 29%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청소년*(5%)에 비해 6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위기청소년 연령별로 16~18세 청소년(43%)이 12~15세 청소년(12%)보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훨씬 높았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지만, 본 조사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7%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그림]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동일 연령대 일반 청소년과 비교, %)



*자료 출처 : 김지연 외(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p.185)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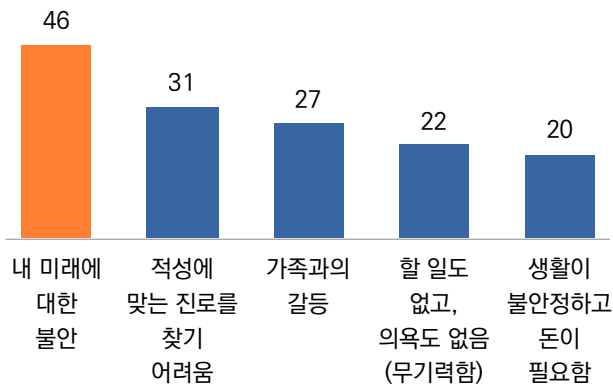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하면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됨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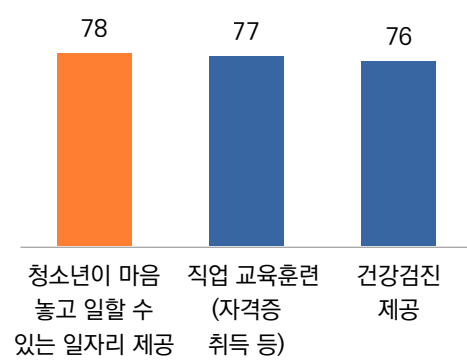
위기청소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46%)이 가장 커!

- ▶ 위기청소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46%)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어려움' 31%, '가족과의 갈등' 27%, '무기력함' 22% 순으로 응답됐다.
- ▶ 그렇다면 '위기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지원서비스'는 무엇일까? 조사결과, '일자리 제공' 78%, '직업교육훈련(자격증 취득 등)' 7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이는 앞서 '위기청소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언급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의 어려움'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더불어 위기청소년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자립 지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위기청소년이 현재 겪는 어려움 (복수응답, 상위 5위, %)



[그림] 위기청소년 희망 지원서비스 (복수응답, 상위 3위, %)



시사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 18:12-14)

‘위기청소년’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다. 위기청소년을 바라볼 때는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이 현실에서 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현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가 표준으로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다수의 행복 증진에만 관심이 있고, 소수자의 행복은 부차적인 관심일 뿐이다. 선착순 달리기에서는 순위에 든 사람만 기억할 뿐 낙오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순위 안에 들어서 평안을 얻은 사람은 낙오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낙오된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누리는 행복에만 집중한다.

현실도 이와 같다. 대학 입시 혹은 전교 0등이라는 목표 앞에서 뒤처지고 있는 ‘위기청소년’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력이 없다. 학교 교육 체제 내에선 이들을 품기에 벅차 ‘방치 혹은 무시’하는 게 현실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위기청소년을 부모가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로는 원래 자녀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도 있지만, 자녀의 반복되는 일탈 행동으로 인한 좌절감과 무력감 때문이거나 부모의 맞벌이, 이혼 등으로 자녀를 돌볼 시간적 여유나 상황이 되지 못해서인 경우도 많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회 청소년이 ‘위기’ 상황까지 갔다면 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교사나 지도 교역자가 연락을 취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들은 점점 교

회에서 관심 밖의 존재가 되어 간다. 또 설사 교회에 나와도 아웃사이더로 지내는 위기청소년에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 없이 열정만으로 봉사하는 대부분의 지도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회에 위기 청소년까지 품으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된 보통의 교회에게는 수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인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손을 놓아야 할까?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위기청소년 전문가와 전문지원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후원하는 것도 좋은 대응 방법이다.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에서는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의식주를 제공하기도 하며, 이들의 고민을 상담한다. 기관 내 청소년 상담·지도사들은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지지해주고, 사회성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사회 내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

위와 같이 위기청소년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들을 지도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개 교회의 ‘사랑’과 ‘열정’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위기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위기 청소년과 교회 밖 전문 사역 기관을 연계시켜 주는 것도 보통의 교회에서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 위기청소년 문제를 굳이 내 교회 문제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기관을 후원하여 위기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며, 선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이다. 우리 사회와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위로받고 보호받으며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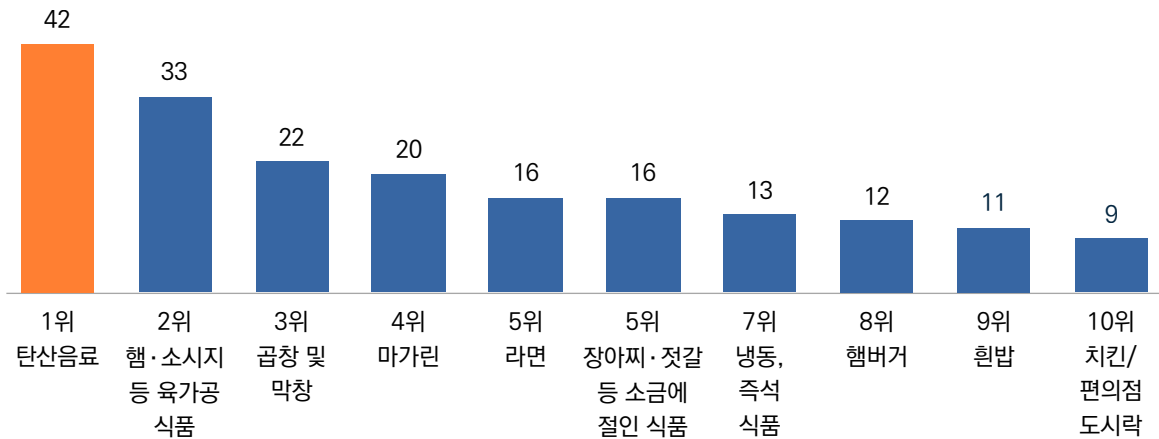
- 1.[건강 전문가가 말하는 피해야 할 음식 TOP10]
- 2.[한국인의 육류 소비 실태]



건강 전문가가 말하는 피해야 할 음식은? 1위 탄산음료, 2위 햄·소시지, 3위 곱창!

- ▶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건강 전문가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피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헬스조선’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39개 음식을 선정, 의사·약사·영양학자 등 건강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 되도록 피하는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 그 결과 탄산음료가 42%로 1위였고, 햄·소시지 등 육가공식품이 33%로 2위, 곱창/막창이 22%로 3위로 나타났다.
- ▶ 1위로 뽑힌 ‘탄산음료’를 피하는 이유로는 ‘당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열량이 높아’ 비만, 당뇨, 심장질환 같은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 되며,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등은 빠진’ 음식이라 ‘영양불량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2위)은 ‘가공할 때 들어가는 첨가제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곱창 및 막창(3위)은 ‘위생적인 문제와 동물성 포화지방이 높아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 ▶ 한국인이란 대부분 즐겨먹는 ‘라면’(공동 5위)의 경우 ‘장아찌·젓갈 등 소금에 절인 음식’(공동 5위)과 같이 ‘높은 나트륨 함량’ 때문에 주의하고 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림] 건강 전문가가 꼽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 피하는 음식’ (상위 10위,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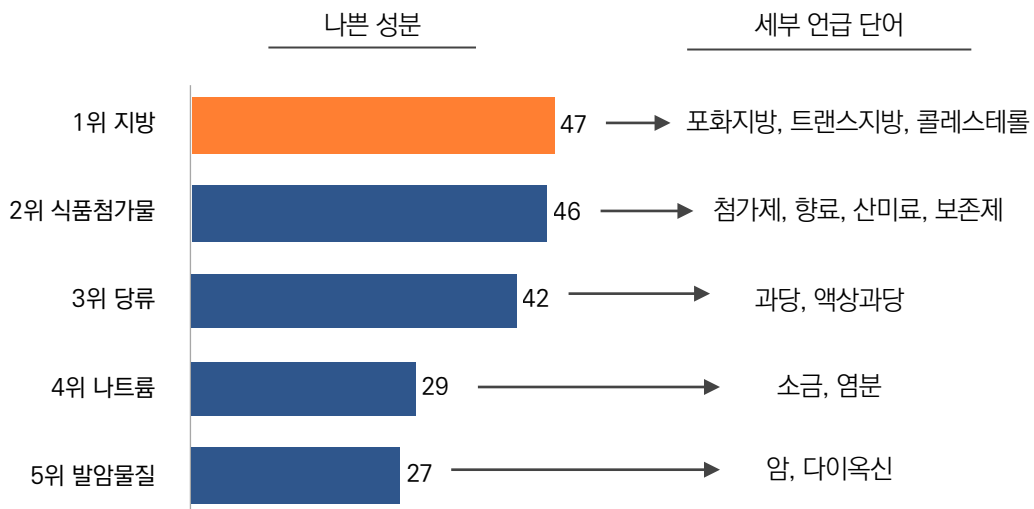


*자료 출처: 헬스조선, '건강 전문가 100명이 멀리하는 음식은?' PART1, 2017.03.15.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3/2017031300913.html)

◎ 건강 전문가의 언급 빈도로 알아본 나쁜 성분, ‘지방’이 가장 많이 언급돼!

- ▶ 연구팀은 전문가들이 ‘건강을 생각해 피하는 음식’을 선택하면서 ‘선택한 이유’로 언급한 단어들의 빈도를 분석하여 어떤 성분이 몸에 해로운지를 살펴보았다.
- ▶ 언급 빈도별로 보면 ‘지방(4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품첨가물’ 46%, ‘당류’ 42%, ‘나트륨’ 29%, ‘발암물질’ 2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건강 전문가의 ‘언급 빈도별’로 알아보는 나쁜 성분 TOP5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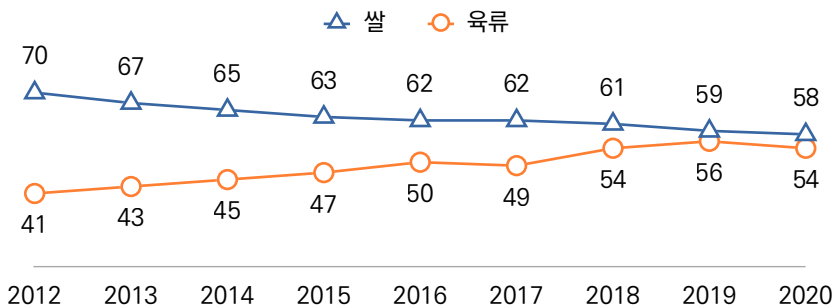
*자료 출처: 헬스조선, '건강 전문가 100명이 멀리하는 음식은?' PART2,3, 2017.03.16.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3/2017031300973.html)



한국인의 연간 육류 소비량, 쌀 소비량과 맞먹어!

- ▶ 앞에서 건강전문가들은 피해야 할 음식 성분으로 ‘지방’을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육류를 한국인들이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국인 1인이 1년 간 섭취한 육류(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포함)는 54kg로 같은 해 1인당 쌀 소비량(58kg)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 ▶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은 2012년 이후 8년간 32%나 증가한 데 반해, 쌀소비량은 17% 감소하여,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쌀과 육류 소비량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육류·쌀 1인당 연간 소비량 (단위: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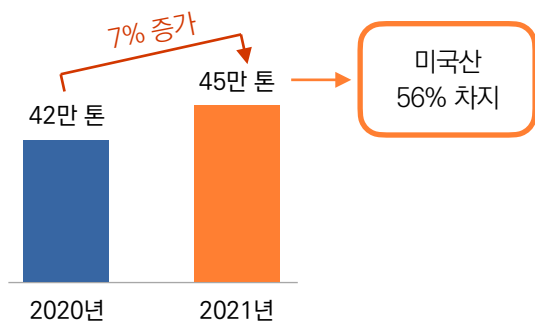
8년간
육류소비 32% 증가
쌀 소비 17% 감소

*자료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http://www.kmta.or.kr/kr/data/stats_spend.php)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2.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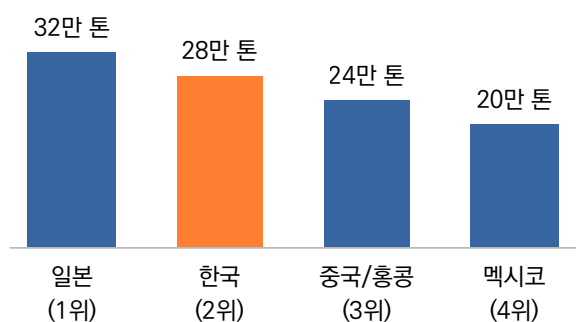
◎ 한국, 전체 소고기 수입의 절반 이상이 ‘미국산’(미국 소고기 수입 세계 2위)!

-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소고기 수입량은 45만 톤으로 2020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은 우리나라 전체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을 넘어서고(2021년 56%),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 ▶ 한편 미국육류수출협회의 ‘미국 소고기 수출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일본, 한국, 중국/홍콩 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3위가 모두 아시아 국가이다. 한국은 2021년 기준 미국에서 소고기 수출을 두 번째로 많이 한 국가로 랭크됐다.

[그림] 한국의 전체 소고기 수입량 (검역기준)



[그림] 미국 소고기 수출 현황***(2021년 기준, 상위 4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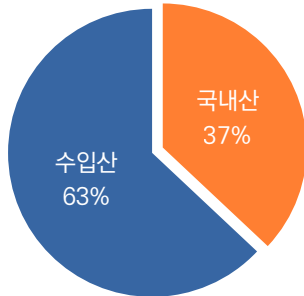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2020년~2021년 소고기 수입현황(연도별 수입현황 통계 참조) (http://www.kmta.or.kr/kr/data/stats_import_beef_month.php)
**자료 출처 : 미국육류수출협회, 미국 소고기 수출 통계 2012~2021 (<https://www.usmef.org/downloads/Beef-2012-to-2021.pdf>)
***부산물 포함, 통관 기준임

◎ 한국 내 공급되는 소고기 비중, 수입산 63% vs 국내산 37%!

- ▶ 한국인들이 소비하는 전체 소고기 소비량 중 국내산과 수입산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농림축산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2021'를 보면 국내산 소고기 자급도, 즉 '국내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소고기의 비율'은 전체 소고기 공급량의 37%로 조사됐다.

[그림] 한국 내 전체 소고기 공급량 중 국내산과 수입산 비율 (2020년 기준)



*자료 출처 : 미국육류수출협회, 미국 소고기 수출 통계 2012~2021 (<https://www.usmef.org/downloads/Beef-2012-to-2021.pdf>)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2021, 2021.11 (<https://lib.mafra.go.kr/skyblueimage/30090.pdf>)

**Note : 국내산 소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포함함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96호\(2022년 5월 3주\)](#)

- 북한 의료 지원, 통일 시기 인식, 경제 전망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71호 \(2022년 5월 3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긍정 평가 이유, 국정운영 부정 평가 이유, 국정운영 신뢰도, 정당지지도 등

◎ 사회 일반

[수면제 중독 10만 명...한국, 수면부족 세계 최고](#)

기독교타임즈_2022.04.07.

[\(기획\) 지역 소속감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여론속의여론_2022.05.17.

["퇴근후 간병, 하루 두번 사는 느낌"... 50% 똥 간병비에 가족들 쓰러질 판](#)

조선일보_2022.05.17.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발명기술 1위는 '인공지능' 2위는?](#)

중앙일보_2022.05.18.

[기초단체 97%, 주거취약 노인가구 증가...환경개선 시급](#)

연합뉴스_2022.05.18.

[또 휴지 조각 된 암호화폐... 2040은 왜 투자 포기하지 않나](#)

한국일보_2022.05.19.

[북한 코로나 의료지원...국민 10명 중 7명 '해야 한다'](#)

연합뉴스_2022.05.20.

[소득 10% 늘었지만 소비는 0.8% ↑ ... 임금 인상발 인플레 우려](#)

국민일보_2022.05.20.

[금융자산 1억 이상 '뉴 시니어' 고수익보다 원금보장 원해](#)

조선일보_2022.05.20.

[한부모 4명 중 1명 "코로나로 소득수준 감소"](#)

연합뉴스_2022.05.23.

◎ 청소년 / 청년

[초·중학생 학교 그만두는 비율 높아져..."원하는 것 배우려"](#)

연합뉴스_2022.05.17.

[MZ세대, '괜찮은 일자리' 1순위는 워라벨](#)

중앙일보_2022.05.1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건강**

[고혈압 환자 14년새 배로 늘었다...성인의 31% 차지](#)

연합뉴스_2022.05.16.

[절망, 무기력... 2030 우울증 왜이렇게 늘까](#)

헬스조선_2022.05.17.

["이유 없이 가슴이 뛰고 불안해요"... 범불안장애, 전 국민의 5%가 겪어](#)

한국일보_2022.05.19.

['3명 이상' 자녀 둔 부모, 두 자녀 부모보다 6년 더 늙는다](#)

동아일보_2022.05.19.

◎ **환경**

[온실가스·해수면·해수온·산성도 기후변화 지표 지난해 일제히 악화](#)

국민일보_2022.05.19.

◎ **기독교 / 종교**

[코로나 이후 성도 20% 넘게 줄었다](#)

국민일보_2022.05.20.

[기독교 유권자 10명 중 8명... 교육감 후보 "종교보다 기독교 가치"](#)

국민일보_2022.05.20.

[한국교회 52.7% '마을목회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공보_2022.05.20.

◎ **기획기사 : 저출산시대 공동육아, (연합뉴스)**

[1. "함께 키움' 덕분에 둘째·셋째도 낳았어요" _2022.05.13.](#)

[2. 코로나 돌봄 공백 "함께 했기에 메울 수 있었다" _2022.05.14.](#)

[3. 워킹맘도 육아 품앗이로 코로나 견뎌냈다 _2022.05.15.](#)

[4. '직접 돌봄' 원해도 현실적인 선택은 '어린이집' _2022.05.16.](#)

[5.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성공·실패를 가른 이유 _2022.05.17.](#)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올림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행복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핏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환,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성,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지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상암교회(김봉수 목사), 서영교회(한수환 목사)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 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연구소 소식 |

- 저희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한국IFCJ가정의 힘'에서 <가정세움학교>를 교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정의 힘 홈페이지([링크](#))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링크](#))에서 '가정세움학교'를 검색하세요.